



개념의 뿌리 내리기

147쪽 : 4등으로 이어지는 소설의 분석법①

1. 소설의 해석법① : 시점, 배경, 성격, 갈등을 찾아라!

시점)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 범위

배경)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배경

성격) 인물의 캐릭터

갈등) 욕망의 좌절



연습, Start!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 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 초시 맥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푼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황순원, <소나기> 중

시점은 무엇인가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갈등은 어떠한가요?





다음 소설을 분석하시오.

<p>일인들이 토지와 그 밖에 온갖 재산을 죄다 그대로 내어 놓고, 보따리 하나에 뽕만 쫓기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한 생원은 어깨가 우쭐하였다.</p> <p>“거 보슈 송 생원, 인전들, 내 생각 나시지?”</p> <p>한 생원은 허연 탐삭부리에 묻힌 쪼글쪼글한 얼굴이 위아래 다섯 대밖에 안 남은 누런 이빨과 함께 흐물흐물 웃는다.</p> <p>“그러면 그럴지, 글세 놈들이 제아무리 영악하기로소니 논에다 네 귀퉁이 말뚝 박구성 인도깨비처럼, 어여차 어여차, 땅을 떠 가지구 갈 재주야 있을 이치가 있나요?”</p> <p>한 생원은 참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조선은 독립이 되었다는 그날 - 팔월 십오일 적보다도 신이 나는 소식이었다. 자기가 한 말이 꿈결같이도 이렇게 와 들어맞다니…… 그리고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일인에게 팔아 넘긴 땅이 꿈결같이도 도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다니…… 이런 세상에 신기하고 희한할 도리라고는 없었다.</p> <p>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팔월 십오일, 그 때는 한 생원은 섬뻍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이번에는 저절로 만세 소리가 나와지려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채만식, <논 이야기></p>	<p>시점은 무엇인가요?</p> <p>배경은 무엇인가요?</p> <p>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요?</p> <p>갈등은 어떠한가요?</p>
<p>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혹 들이켜고 다음을 계속했다 - 섬사람들이 한창 독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 차가 한 대 와 달은 뒤라 한다. 웬 강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독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할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독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원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 봐도, 들어 주inker녕 그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패진 친구가 되레 갈발새 영감의 께이를 와락 뺏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 던졌다는 거다.</p> <p>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속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발새 영감도,</p> <p>“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놈들의 욕심이 중하냐?”</p> <p>말도 채 끝내기 전에 열령 그 자를 들어 물 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p> <p>“내가 그랬소!”</p> <p>갈발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 때는 독이 완전히 뽕개지고, 섬을 치뽕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뽕그적뽕그적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p>	<p>시점은 무엇인가요?</p> <p>배경은 무엇인가요?</p> <p>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요?</p> <p>갈등은 어떠한가요?</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305호에서 불의의 방문객을 맞은 것은 10시 반쯤이었다. 의외로 많은 조객에 305호 식구들은 당황했고, 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낮이 익은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고는 가슴 뭉클한 고마움을 느꼈다.

“어머님, 그만 고정하세요.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네는 애써서 울음을 추슬렀다.

“밤중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을…….”

노인네는 손수건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누추하지만 마루로 좀 올라오시지요.”

광대뼈가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는 피곤한 모습의 집주인인 아들이 자리를 권했다.

현관에 빠듯하게 들어서 있던 네 남자가 마루로 올라갔고 뒤에 서 있던 세 여자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복중에 상을 당하셔서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통장 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주인에게 조의를 표했다.

방문객은 모두 일곱 사람이었다.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은 아래층 205호, 위층 405호, 그리고 옆집인 306호의 부부들이었다.

“제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통장은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다. 사람으로 가득 찬 것과는 반대로 실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니까 큰소리로 우는 건 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몰차다 싶은 통장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들이 아니라 계속 느껴 울고 있던 노인네였다.

“거 무슨 흥한 말씀이요!”

노인네는 가당찮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들은 노인네의 서슬과는 반대로 멍한 눈길을 건너편 벽에다 보내고 있었다.

“곡이 없으면 망자가 가는 험한 길을 닦을 수가 없는 게요.”

노인네는 언제 울었느냐 싶게 눈을 똑바로 뜨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닌 좀 가만게세요.”

아들은 만사가 귀찮다는 몸짓으로 노인네를 제지했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들 오셨나요?”

아들이 서운한 빛을 역연히 드러내며 물었다.

“예, 여기가 똑똑 떨어져 사는 단독 주택이 아니고 서로 위아래, 양옆으로 붙어 살아야 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통장은 내친걸음이라 싶었던지 장례일 단축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었다.

“안 돼. 그 무슨 버락뭇을 소리야! 그건 안 돼!”

통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노인네가 소리쳤다.

“글쎄, 어머닌 좀 가만히 계시란 말예요.”

아들이 역정을 냈다.

“여긴 아파합니다. 넓지도 않은 13평짜리예요. 거기다가 여름이고, 모두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라 그런지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가 파리가 얼마나 들끓습니까. 내 말을 야속하다고 생각진 마십시오. 벽 하나를 사이에 놓고 위아래, 양옆으로 사람들이 사는 아파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떨구어버렸다. 자신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남녀 열네 개의 눈동자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노인네는 마구 구겨 쥔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느껴 울고 있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사흘도 짝인데 그 무슨 흥악한 소리냐. 안 되고 말고, 그건 안 돼.
 노인네는 새롭게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부르짖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돌아들 가지지요.”

[중간 줄거리] 그날 밤 305호에서 ‘딱, 딱악-딱’ 하는 소리가 잠시 들리고, 그 섬뜩한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 이웃 사람들은 밤새 잠을 못 이룬다.

날이 흰히 밝아오고, 6시쯤이 되었을까. 몸집이 크게 느껴지는 찻소리가 뽕뽕 울려오고, 계단에 부산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준수네, 영주네, 그리고 옆집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현관 가까이에 영구차가 관이 들어갈 뒷문을 아가리처럼 벌린 채 발동을 걸고 있었고, 관을 옮기느라고 힘을 모으고 있는 장의사 사람들의 힘쓰는 소리가 계단을 타 내리고 있었다.

광목으로 감싼 관이 현관에 불쑥 나타나더니 이내 차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변해버린 노인네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다. 쇠잔한 어깨가 들먹이는 것으로 보아 우는 것이 분명한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노인네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듯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의차가 가솔린 냄새를 남긴 채 아파트를 떠나갔다.

“어젯밤 그 소리가 관에 못 치는 소리였었군.”

누군가가 말했고, 모두는 허망한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흩어져갔다.

차가 아파트촌을 벗어나자 노인네는 입에서 수건을 떼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여보, 날 버리고 혼자만 가면 어떡해요. 이런 세상에 날 버리고 가면 난 누굴 믿고 살아요. 나를 데리고 가요, 여보. 나도 함께 가요, 여보오…….”

- 조정래, < 외면하는 벽 >

0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대화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이야기의 비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1. 소설의 해석법② : 주제를 찾아라! (작품 탐구하기②)



연습, Start!

(가) [전락 줄거리] 방울재가 댐 건설로 수몰되고 칠복은 광주의 산동네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칠복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와 댐 주위에서 낚시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칠복은 낚시터에서 징을 두들기다 낚시꾼들에게 구타당한다.

(나) “안 가겠다면 덕석몰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꺼여!”

강촌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붕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마여.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덩석 껴안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들 물고 참아 냈다. 강촌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갔고, 뒤이어 붕구와 덕칠이,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라)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저 구석을 쿡쿡 쑤셔대는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마)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붕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내고 뺨거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꽂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쑤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 문순태, <징소리>

주제를 찾아봅시다!





다음 소설을 분석하시오.

조 그 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仇甫)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었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악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 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 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恒久)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쨌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 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여앉을 수도 없게스리 사람들은 그 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 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사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주제를 찾아봅시다!

오후 여섯 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십여 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 때 시간은 열 시 오륙 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의 내가 들어 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의 생활.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써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내가 들어 있던 집은 판자를 얹어서 만든 형편없이 작은 집이었지만 방은 다섯 개나 되었다. 따라서 겨우 한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꼭 차버리는 방들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에서도 좀 넓고 채광도 좋다는 방을 주인 식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방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 세 개에 비하면 빗물도 새지 않을 정도의 방은 방세 지불이 정확한 영자라는 창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이 달린 방에는 오십쯤 나 보이는 강마르고 절름발이인 사내가 열 살 난, 열 살이라고는 하지만 영양 실조 등으로 볼이 훑쪽하고 머리만 커다랄지 몸은 대여섯 살 난 애들보다 더 작고 말라비틀어진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 중에서 한 방을 사십대의 막벌이 노동자 서 씨가, 그리고 한 방을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 김승옥, <역사(力士)>

주제를 찾아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이북에 가족과 애인을 두고 온 아버지와 물질적 풍요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아는 어머니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한다. 큰아들 병국은 서울의 일류 대학을 다니다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퇴학을 당해 낙향하고, 재수생인 동생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칠새들을 박제하는 일에 가담한다. 환경 문제에 뛰어난 병국은 도요새들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원인과 동진강의 환경오염 실태 등을 추적하다가 새들의 죽음이 병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의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애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을 시작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도 뭘 하나?”

병국의 언성이 높아졌다. 여윈 목에 푸른 심줄이 불거졌다. 그때 늙은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 왔다.

“나 원, 별 말고 같은 소리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형,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 어쨌어?”

하고는 병식이가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에 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잔에다 술을 부었다.

“자, 우선 한잔 꺾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누가 네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을 대.”

병국이가 술이 찬 잔을 한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출렁거린 술이 반쯤 식탁 위에 쏟아졌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순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쳐.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삼십억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어. 그 중 내가 오십 마리를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럴당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 버리지 뭘,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구.”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아우의 멍살을 틀어쥐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개시도 안 한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소리쳤다.

“난 못 불겠다. 그래, 고발 좋아한당 고발해 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을 차지!”

병식이가 형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형도 구치소개나 출입했으니 아운들 햇볕만 보란 법은 없으니깐.”

“이 자식, 말이면 다야!”

순간 병국의 주먹이 아우의 턱을 갈겼다. 병식이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자 금세 입술 사이에서 피가 내비쳤다.

“쳐, 정말 형이 날 쳤어!”

병식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의자와 술상 사이로 빠져나오더니 형의 허리를 억세게 조여 안았다. 병국이의 몸이 마른 장작개비처럼 번쩍 들렸다. 병식은 형을 홀 바닥에 내동댕이치곤 옆에 있던 의자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형의 면상에다 내리찍으려 하다 손에 힘을 뺐더니 그만 내려놓았다.

“형, 오늘은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정말 다구리 탈 짓*을 했당 형한테 얼마든지 맞아 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죽인 것도 아니구, 족제비란 친구를 따라 심심풀이로 같이 다녔는데, 뭐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해!”

병식은 백 원짜리 동전 세 개를 소리 나게 놓았다. 입술의 피를 닦았다. 그리고 가방을 들더니 재빨리 출입문을 열었다.

“병식아, 학관 끝나면 집으로 꼭 들어와!”



모퉁이로 쓰러졌던 병국이가 상체를 일으키며 외쳤다. 그러나 병국이는 이미 술집을 나서 버린 뒤였다. (중략)

병국은 정배 형의 학교로 전화라도 한 통 걸까 하고 공중전화 박스를 찾았다. 퇴근 시간 무렵이라 개펄로 같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권해 볼 심산이었다. 그럴 사이 아침 버스 정류소에 도착했고, 웅포리행 차가 와서 올라타고 말았다. 제일 뒷좌석이 비어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 병국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는 잠을 자듯 그렇게 늘어져 있었다.

눈앞에 수백 마리의 도요새 무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 무공 천지를 가르며 점점이 날고 있었다. 날개를 파닥파닥 상하로 쳐 대며 바람에 쫓기듯 빠라처럼 남으로 남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병국의 눈앞에 한 마리의 도요새가 무리에게 떨어져 나와 힘없이 처져 날더니 저 공으로 떨어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낙오된 새는 지쳐 더 날 힘을 잃고 꽃잎 지듯 바다로 향해 떨어졌다. 암흑 천지의 밤이었다. 파도는 높았고 바람은 드세었다. 멀리로 깜박깜박 등대 불빛이 보였다. 도요새 무리는 등대 불빛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가린 등대의 몸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몇 십 마리의 새가 등대 벽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 다시 낮이었다. 강 하구와 벼를 베고 난 논바닥에서 도요새 무리가 쉬고 있었다. 하늘 높이 점처럼 떠 있던 때 한 마리가 갑자기 수직으로 쏜살같이 떨어져 왔다. 매는 미처 날 틈을 못 찾고 쫓음걸음을 하는 도요새 한 마리를 쉽게 포획했다. 포획당한 도요새가 매의 날카로운 발톱에 찍힌 채 애처롭게 울 동안 다른 도요새 무리는 재빠르게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또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와 그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먹이가 도요새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되었다. 자유로운 삶의 터를 찾아 고통의 길고 긴 도정 중에 나는 그렇게 낙오되는 도요새가 아닐까. 대열에서 낙오되는 그 수효가 몇 백 마리, 아니 몇 천 마리 중의 하나일지라도 내가 바로 그 하나가 되어 죽어 버린 것이 아닐까. 설령 이렇게 숨쉬며 살아 있어도 혼이 빠져 버린 가사 상태일는지도 몰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이 꼬리를 물고 그의 일을 뽑았다.

“중점이에요. 손님은 안 내리세요?”

병국이가 눈을 뜨니 버스 안내원이었다. 버스 안은 비어 있었다. 병국은 쫓기듯 버스에서 내렸다. 웅포리였다. 그는 주차장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해풍이 시원하게 그의 얼굴을 훑었다. 그는 모래톱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끝달은 데 없이 펼쳐진 바다 멀리로 시선을 주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영상>

* 다구리 탈 짓 : 뭇매 맞을 짓

01.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의미를 바르게 묶은 것은?

술 집	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간의 가치 충돌이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 (ㄱ) ◦ 과거와 달리 예의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 (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a) ◦ 주인공의 욕망이 정확되는 공간 (b) ◦ 주인공이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 (c)

① (ㄱ) - (a)

② (ㄱ) - (b)

③ (ㄱ) - (c)

④ (ㄴ) - (b)

⑤ (ㄴ) - (c)

